‘시대의 양심’ 신부 어떻게 탄생할까

지난달 24일 오전 광주시 서구 쌍촌동 가톨릭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사제(司祭) 서품식. 서품을 받게 되면 천주교 사제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7년 혹독한 대학생활, 시험·면접후 서품

광주 가톨릭대학 올 32명 입학 12명만 졸업

‘올바른 사제의 길’ 평생 끊임없는 고뇌의 삶

지난 10월2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神父)들이 삼성의 불법비자금 사용 의혹을 김용철 변호사와 함께 폭로하면서 삼성 비리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또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 국가권력에 의해 모든 언로(言路)가 차단당했을 때도 신부들은 앞장서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했다.

‘시대의 양심’으로까지 불리는 신부.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 것일까?

지난달 24일 오전 광주시 서구 가톨릭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백호(40) 수사의 사제서품식이 진행됐다. 윤공희 대주교의 주례로 진행된 사제서품식에서 백 수사는 사제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안수(按手)를 받고 제의를 입음으로써 신부가 됐다. 지난해까지 사제품을 받은 사제는 총 3천974명, 광주·전남은 264명이었다.

사제품을 받기 위해선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6곳에 있는 가톨릭대학 신학과에 입학해야 한다. 수능 점수와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교리시험 및 교수 신부의 면접도 통과해야 한다. 입학 후 학부·대학원 등 7년간 대학생활을 하며 사제로서 지녀야 할 지식과 자질, 신앙심을 키우게 된다.

신학대학은 학기제와 방학이 일반 대학과 비슷하지만 신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차이가 있다. 또 하루 일과가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이뤄지며, 외출도 수요일과 일요일에만 허용되는 등 엄격한 규율이 뒤따른다.

신학생이 되면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 취침 전까지 기도와 수업을 반복한다. 영어를 비롯한 라틴어·희랍어·히브리어 등 어학과 성경·철학·종교 역사 등 4년간 학부생활에서 총 140학점을 이수한다. 학부를 마치면 곧바로 2년의 대학원 생활이 시작된다. 24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대학원을 마친 후 1년간은 부제(副祭)로서 교수 신부를 도우며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졸업하는 숫자는 많지 않다. 광주 가톨릭대학의 경우 ▲2005년 35명 ▲2006년 28명 ▲2007년 32명이 입학했지만, 졸업한 학생은 각각 19명·13명·12명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백호 수사신부는 “대학생활 내내 ‘과연 내가 사제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 한다”며 “대부분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오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결심을 해 그만두는 학생들도 많다”고 말했다.

졸업을 한다고 전부 사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대주교의 면접과 시험을 통과해야 사제품을 받는다. 서품식 후 출신 성당에서 첫 미사를 하고 지역 교구에서 담당 성당을 배정해 준다. 배정받은 후 보좌신부로서 주임신부와 함께 미사를 분담해 성당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또 신부들은 지역 교구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광주대교구 소속 신부들의 경우 평균 한 달에 약 110만 원을 받게되며, 연간 1만원 가량씩 오르게 된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 금호성당 고근석(30) 신부는 “신부가 돼서도 ‘내가 사제로서 합당한가?’에 대한 고뇌는 끊임없이 이어진다”며 “신부들의 가장 큰 소원은 ‘신부로 죽는 것’이다. 그만큼 평생 사제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대선 때문에 성금 확 줄어 복지기관 울상

광주·전남 모금회 비상

대선을 앞두고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성금이 예년처럼 들어오지 않기 때문.

‘희망2008나눔캠페인’(2007년 12월1일~2008년 1월31일)을 진행하고 있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올해 목표액은 45억원이지만, 지난 10일 현재 모금액은 4.9%에 불과한 2억2천만원.

목표액을 40억원으로 잡았던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모금액이 3억6천만원으로 목표액 40억원의 9%였다. 지난해 캠페인의 총 모금액은 43억6천만원이었다.

광주의 경우 올해 목표액 17억2천만원 중 13일 현재 모금액은 1억7천만원으로 10%를 달성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2억원으로 15%였던 것을 감안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다. 광주의 지난해 총 모금액은 15억6천만원.

단체 관계자들은 이처럼 지난해에 비해 성금 행렬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 19일 치러지는 대선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회장이 사재를 털어 2천만원을 기부, 성금 모금을 독려하기도 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균 사무국장은 “대선 때문인지 참여율이 저조해 전남의 각 시·군과 기업들을 직접 순회하면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관공서와 기관들에 명예회장인 박준영 전남도지사 명의의 협조서한문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종교칼럼

김유수

월인천강

월인천강(月印千江), “하나의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조선의 세종대왕(世宗大王)이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가 죽자 명복을 빌기 위하여 아들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명하여 석보상절(釋譜詳節)을 만들어 세종대왕에게 올리니 왕이 보고 기뻐하여 자신이 직접 지은 노래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월(月)’이란 석가모니를 뜻하며 ‘천강(千江)’은 중생(重生)을 비유한 뜻으로 쓰였다고 한다. 용비어천가와 함께 조선 초기의 2대 서사시로 국어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남아 있다고 한다. ‘달’은 석가모니만이 아니라 부모도 되고 스승 혹은 나라님이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필자로서는 ‘달’은 바로 예수님이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 이름은 ‘월광(月光)’이다. 달빛이란 뜻이다. 빛고을인 광주에 걸 맞는 이름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이름을 햇빛이라 하지 왜 달빛이라 하였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빛의 근원인 태양이라 할 수는 없고 반사체인 달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다.

월광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고목이 되지 말고 거목이 되고, 호수가 되지 말고 흐르는 강이 되며, 그믐달이 아닌 항상 보름달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보자고 온 성도와 함께 다짐한 적이 있다.

“달을 가지려고 한다면 먼저 마음의 강을 만들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달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이 아니더라도 작은 옹달샘 혹은 물이 있는 작은 항아리에서도 달이 들어 있음에 놀라워했던 어린 시절 추억이 있다. 넓은 바다에도 달이 있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달이 있었다. 하늘에만 달이 있음이 아니라 이 땅에도 달이 있음을 보았다. 신의 마음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말고 네 마음에서 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하시지 않았는가?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깨달은 자가 되어야 한다. 거듭남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인의 해산의 고통보다 더 하는 아픔을 겪는다. 뱀이 허물을 벗을 때와 나비가 누에고치를 벗고 나방으로 태어날 때도 그만한 아픔은 있다.

‘월인천강(月印千江)’,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온 세상과 인류의 가슴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기원한다.

〈목사·광주 월광교회 담임〉

합창단 공연·강연·성탄절 거리축제

교회·사회단체 다채로운 문화행사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교회와 단체들이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한다.

국제청소년연합(회장 도기권)은 1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2007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개최한다. 합창단은 이번 공연에서 캐롤과 성탄 명곡들을 들려준다. R석 6만원 S석 4만원 A 2만원. 문의 062-655-7200.

광주시 북구 누문동 은광교회(담임목사 전원호)는 오는 29일 오후 1시 KBS 개그콘서트에 ‘마빡이’로 출연했던 개그맨 정종철을 초청, 청소년을 위한 강연을 마련했다. 개신교 집사이기도 한 정씨는 이날 강연에서 ‘청소년 아름다운 생명지키기’를 주제로 신앙 생활과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편, 강연에 앞서 신앙 간증도 할 예정이다. 문의 062-526-4664~5.

광주 일곡중앙교회(담임목사 정연수)는 16~25일까지 ‘제9회 성탄절거리축제 일곡동한마당’을 연다. 문의 062-572-4271~3.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